"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10690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9월 22일 화요일(음력 8월 12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모윷 나와라" 추석을 사흘 앞둔 21일 제주시 이도동 키즈빌어린이집 원아들이 한복을 입고 윷놀이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렌터카 요금 절반 이하로 '뚝'

도, 지난 16일부터 요금 할인폭 제한하는 제도 시행
업계 새 대여약관 신고… 소형차 기준 20만→ 8만원
시기별 들쑥날쑥 요금따른 소비자 불만 해소 기대

제주도가 렌터카 업계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던 요금 할인폭을 제한하고 가격 산정 근거가 되는 운영비용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자 최초 신고 요금이 이전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렌터카 차량 구입비, 유지비, 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대여요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최대 할인율은 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의 60% 이하로 제한했다. 또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

규칙 시행 후 1주일 사이 도내 렌터카 업체 112곳 중 90%가 넘는 103곳이 새로운 대여 약관을 신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업체는 소형인 아반떼와 중형인 쏘나타 대여 요금을 각각 8만원과 9만원에 신고했다. A업체의 기존 신고 요금은 아반떼 20만원, 쏘나타 25만원이었지만 규칙 시행 후 절반 이상 줄여 요금을 신고했다.

또 할인율을 최대 60%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에 따라 A업체는 관광객이 감소하는 비수기에도 아반떼와 쏘나타를 각각 3만2000원과 3만6000원 미만으로는 대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형차 기준 성수기와 비수기 간 가격 격차가 최대 18만원까지 벌어지던 것이 5만원 내외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른바 성수기 요금 또는 정상가로 불리던 최초 신고 요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관광객 불만이 줄고, 업체 간 출혈 경쟁 문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렌터카 요금은 업체가 행정에 신고한 가격대로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할인 폭에 제한이 없고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요금을 바꿀 수 있어 시기별로 들쑥날쑥 한 문제가 있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성수기 가격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는데 규칙 시행 후 최초 신고가는 최대 61%가량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반대로 그동안 업계는 비수기에 최초 신고가 대비 최대 90%까지 요금을 인하하면서 그야말로 손해보는 장사를 했는데, 규칙 시행 후 할인 폭이 제한되면서 앞으로 비수기에는 종전 대비 약 24% 오른 가격이 형성돼 성수기와 비수기 간 가격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제주도-도의회, 민선 9기 첫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민생경제 회복·미래 발전 위해 적극 소통"

내년 재정 운용·공공기관 유치 등 7개 의제 합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지방재정, 제주4·3, 공공기관 유치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 사진

제주도와 도의회는 2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재정운용 방향(민생경제 회복 등)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 개선 ▷공동 국비확보단 운영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2차 공공기관 유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제주 적용과 농사용 전기 공급방식 및 요금 산정기준 개선 등에 대해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필수 민생 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공동 국비 확보단을 구성해 미래 산업 육성 및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 국비 확보에 나선다.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정명 논의와 역사 왜곡 대응,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80주년 기념사업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과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도 도민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대중앙 유치전과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에 양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오늘은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제13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상설정책협의회를 여는 뜻깊은 날"이라며 "제주 도정은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훈 도의회 의장도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정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도정이 의회와 뜻을 함께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공항 추석 연휴 27일 가장 붐빈다

23~27일 하루 평균 8만7000명 이용 예상

추석 연휴 제주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오는 27일이 될 전망이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항공기 운항 편수와 여객은 지난해 추석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반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약 2548편이 운항하고, 여객 약 43만여 명(국내선 38만명, 국제선 5만6000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운항 편수는 510편, 여객은 8만7000여 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10월 2~12일) 하루 평균 운항 편수 518편, 여객 8만9825명과 비교하면 소폭 적은 규모다. 지난해보다 명절 연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 항공기 운항 편수 감소로 이용객도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공항은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앞서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여객터미널과 활주로, 항행안전시설 등 공항시설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풍수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여객 혼잡을 줄이기 위해 ▷도착장 혼잡 구간 정돈 ▷안내요원 집중 배치 ▷보안검색 탄력적 운영 확대 등 피크 시간대 터미널 혼잡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 여객 편의를 위해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고 안내·미화·카트 등 여객 접점 현장인력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마무리… 2면 / 학대 피해아동 치료 전문인력 제주 '0명'… 4면